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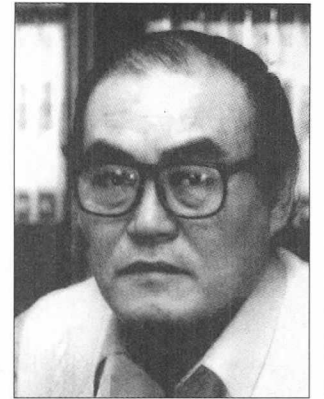
문인들이 쓴 동화·동시 활발

그림책·동시집까지 영역 넓혀... 아동문학의 대안으로 기대

박완서·고은·이문구 등 문단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문인들이 어린이책을 펴내 화제다. 고은·이문구씨가 동시집을 나란히 출간했고, 박완서씨는 그림책을 썼다. 문인들의 창작동화를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국민서관과 한양출판도 《내 친구 상하》(이청해, 국민서관)와 《궁금한 게 참 많은 세상》(이경자), 《별아기의 바다꿈》(한승원, 이상 한양출판)을 출간했다.

장편동화에 국한했던 문인들의 집필활동은 최근 그림책·동시집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어른문학과 어린이문학이 따로 있지 않다는 시각이, 또 다른 편에는 알려진 문인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출판사의 상술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어린이 문학이 갖는 엄연한 전문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부정적인 시각의 한 갈래.

사실 문인들의 어린이물 출간은 낯선 일이 아니다. '어린이가 읽는 책'이라고 꼬집기는 뭣하지만, 생뚱췌베리의 《어린 왕자》,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쉽게 동화 범주에 넣는다. 문인들의 동화쓰기도 개인적인 의욕과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아동물을 요



최근 나온 문인들의 동화와 저자들. 왼쪽 위부터 박완서·이문구·이청해·이경자씨.

구하는 출판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양출판의 조현주 편집장은 "문인들은 누구나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쓰고 싶어한다"며 《한양장편동화》의 기획의도를 밝힌다. 장편동화를 통해 그간 아동문학이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자 한다는 것. 박재구씨의 《아기참새 찌꾸》는 장기수 문제를 언급했고, 최근 나온 이경자씨의 책은 남아선호를 주제로 다뤘다.

여태까지 동화를 한편 이상 발표한 문인은 임철우·김영현·김남일·채영주·이명행·이승우·김소진·정호승·강석경·공지영·허수경·최수철·양귀자·김채원·

김혜순·강은교·김용택 등, 이문만 대면 알 만한 젊은 문인들. 중견작가로 이청준씨나 유순하·윤후명씨,

타계한 김소월·정지용·윤동주·박목월·천상병 같은 시인도 동화나 동시집을 한권씩 갖고 있다.

"자기 자녀에게 읽힐 만한 좋은 창작동화를 찾지 못해 스스로 팔을 걷어부친 경우도 많다"고 국민서관의 조태봉 편집장은 말한다. 이번에 고은씨가 펴낸 《차령이 노래》(동쪽나라)는 자신의 딸 '차령이'의 일상을 동시로 표현한 것. 월간 《굴렁쇠 어린이》(현재 월간 《동쪽나라》)에 1년반 동안 연재한 것을 묶었다. 작가를 선정할 때 작가의 의욕과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출판사의 이유영씨는 "책이 많다면 번역이 뒤섞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품의 질을 의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힌다. 이문구 전집의 하나로 펴낸 《이상한 아바오 1·2》는 윤율과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 문학평론가 유종호씨에게서 "좋은 동시는 훌륭한 시와 일치하게 마련"이라는 평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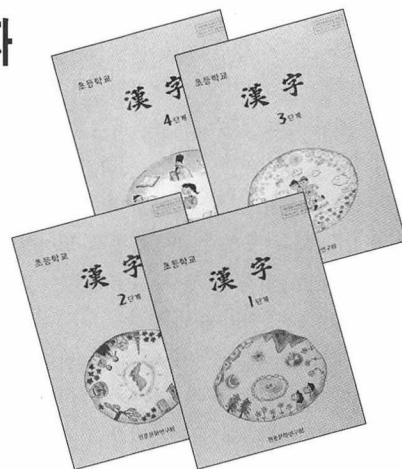
문인들의 동화가 손쉬운 기획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출판사들도 상업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양출판은 오정희씨의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다》, 국민서관은 《아기참새 찌꾸》(박재구) 정도가 어린이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자신들이 잘 아는 문인의 책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을 고르는 상업주의의 함정을 피해간다면 문인들의 동화쓰기는 오히려 기존 아동문학의 대안으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 이현주 기자

화제의 책

단계별로 익히는 초등용 한자 《초등학교 한자(漢字)》

초등학교 기초 한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교과서(전4권). 각 권은 도입과정, 이해과정, 응용과정, 평가로 나눠 한자 익히기의 단계별 학습과정을 따라 기본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생활에 응용,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몄다.

예를 들어 일월산천의 항목에서는 삼화로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면서 응용예문으로 한자의 쓰임을 보여준다. 4단계까지 익히면 모두 703자의



기초 한자를 실제 언어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762-8401)

전통문화연구회/B5/각 154면 내외/각 3500원 내외

버림받은 아동들을 생각한다

어린이의 인권 환기시킨 책들 눈길

핵가족화시대에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홀

로 크는 아이들, 기아나 폭력앞에 무력하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몇권의 책이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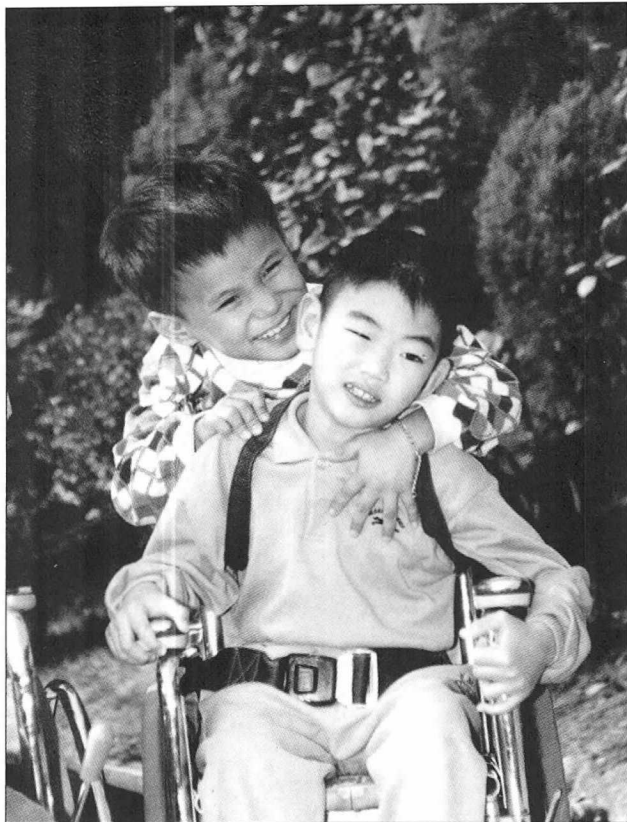
버려진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그

동행하는 즐거움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지체장애의 고통을
지냈지만 순수하고 밝게
사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아이들.
(사진제공 홀트아동복지회)



리움을 담은 《울엄마》(세계사)는 진솔한 고백으로 가슴을 아리게 하는 책이다. 수필, 소설, 시 전3권으로 엮은 이 책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전국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작품 현상공모에서 입선한 작품모음. 제각기 고통과 외로움을 지닌 아이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뇌성마비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발로 한자한자 기록한 <발가락으로 말한다>로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탄 박혜숙양은 장애인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재활원을 전전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었다.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기출한 후고아 아닌 고아가 돼 재활원에 맡겨진 오영희양을 비롯하여 가슴아픈 사연 50여편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세상의 온정이 필요한 아이들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구호기금)에서 5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세상의 어린이들》은 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이다. 사진작가 바나바스와 아나벨 킨더슬리 부부가 3년여에 걸쳐 30개국 이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의 가족과 집, 친구와 학교, 옷과 놀이, 음식과 장난감 등을 담았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 등 몇개국 어린이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척박한 자연환경과 가난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다. 떨어진 신발과 옷, 꺼칠한 피부의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눈은 맑고 건강하다. 배고픈 어린이, 집 잃은 어린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어린이

가 없는 세상을 바라며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유니세프는 취지를 밝힌다.

북한식량난을 증명한 <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통일샘)는 신생아들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북한의 기아 현장을 담았다. 먹을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다름아닌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어린이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관심을 기울인 것을 촉구하는 책이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 책)이다. 어린이의 인권보호와 인권유린의 현장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 아직 자기 힘으로 자활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권리주장을 할 수도 없는 아이들의 인권은 국제법적으로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배경과 각조항 해석, 국내 이행 상황, 민간단체 보고서 등의 내용이 실려 실천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요즘, 이웃과 아이들에 관한 관심과 배려는 더욱 절실하다. 쏟아지는 상업 출판물들 속에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는 책들이 더욱 귀하게 보여진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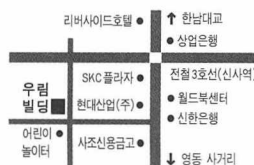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 ~ 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